



김 용 화  
(분지 편집장)

### 저난가를 극복하는 길 생산조절보다 홍보에 역점

2000년 새해부터 난가는 저가에서 출발을 하여 가격회복이 언제가 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당 생산원가가 75(부채금리 제외) 원대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실제 수취가격은 이보다 훨씬 낮은 50원대에서 맴돌고 있었다.

지난 1999년 12월을 병아리 생산하지 않는 달로 설정하여 지지난 1998년 6월에 이어 두 번째 인위적인 생산조절에 들어 갔으나 당장 하락된 난가를 생산비선 이상 끌어 올리는 데에는 아직까지도 험난한 길을 여러 차례 지나야 가능 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런 진단을 내

리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을 놓고 업계에서는 이미 1999년 3월 이후 초생추 입추량에서 조장된 일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어 업계의 큰 어려움을 예견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무관심한 행동으로 일관하여 온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너무 요행수를 바라고 각자 제살길만 찾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어쨌든 먹으려는 소비자보다 계란을 생산하여 공급하려는 생산자들의 관심이 높은 이상 과잉공급 체제는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 실로 암울하다고까지 하소연 하는 채란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 해에 소비의 돌파구를 열어보기 위해

채란업자를 상대로 자조금 모금, 불우이웃 돕기 등의 행사를 시도했지만 의외로 참여도가 낮았음을 볼 때 의아해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사실 자조금 조성을 자율규정에 의거 시행해본 결과 때마다 참여하는 양계인들은 참여하지 않는 양계인 때문에 사기가 저하되어 왔고, 참여하지 않고 있는 양계인들은 시행에는 찬성을 하나 납부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진전 없이 8년이라는 세월 동안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사업을 전개해 왔다.

이제 장기간 난가가 저가에 머물 것이란 전망이 나왔고, 소비가 증가하지 않는다면 채란 농가는 적자경영이 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소비를 늘리기 위한 공동사업에 사활을 걸어야 할 입장이라면 규정이야 어떻든 자금을 거출하여 소비자들이 계란을 먹도록 분위기 조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중 되풀이 되는 일이지만 연초 계절적 요인으로 난가가 상승하는 것을 믿고 대책 마련에 소홀하게 되면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 **농장경영 합리화 자금관리 효율 높여야 한다.**

양계업을 십수년씩 해오면서도 정작 전문가라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과거 사료만 사서 닭만 키워 육계와 계란을 팔던 때에는 그런대로 가격예측이나 자금관리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제법 양계업자로서 전문가라는 인정을 받았으나, 이제는 양계장 단위가 커

지고, 유통의 전문성, 차입규모 증가, 어음유통 등 수 없이 많은 항목들이 생겨나서 이들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자금력을 앞세워 새로 시작하는 초년생보다 나을 것이 없다는 푸념을 할 만큼 양계장 경영관리가 크게 바뀌었다.

닭의 생리를 잘 이해하고 있는 전통적인 양계인들이 경영관리에 신경을 써서 전문가적인 위치를 확보한다면 금상첨화라 하겠으나, 점차 복잡해지는 금융거래 체계와 농장 규모의 증가로 생산과 경영이 분리되어야 할 양계장들이 나타나고 있을 정도이니 우선 차입 규모가 커진 농장들의 자금관리는 경험과 금융원칙에 따라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육계와 계란, 또는 병아리 가격에 따라 자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은 농장마다 체계적으로 수립을 해야 할 때가 된 것으로 보인다.

차입금도 대출 종류에 따라 이율이 천차만별이어서 사료외상 대금 등 성격별로 분류하여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규모는 키워놓고 외상내지 차입금은 많은데 비해 경영관리는 과거와 같이 한다면 제아무리 닭의 생리를 잘 알아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 수익면에서는 오히려 적자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미 많은 양계인들이 지난 경제위기 때에 차입금에 의한 시설투자 확대가 얼마나 고통스런 일인가를 잘 경험하였으리라고 추측하고 있다. 사업상 전액 자부담으로 차입금 없이 농장을 경영할 수 있다면 바람직한 일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금융권을 이용하여 대출로 농장경영을 대신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 신경경제체제일런지도 모른다.

이때에 중요한 것은 투자 규모와 투자적기를 잘 선택하는 길이다.

사양관리에 대한 자신감과 경영관리는 일정 수준까지 병행하겠지만 속성상 위로 갈수록 둘다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어 새로운 개념의 농장경영관리에 관심을 가져야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양계산물의 마진은 수입개방으로 점점 줄어드는 방향으로 접근을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하락 폭은 클 수 있지만 생산비선 이상 상승할 기회는 적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종전과 같이 적자시 버티면 만회할 기회가 없고, 다만 생산비를 최대한 낮추어 가격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빈도가 높다는 가정 하에 좀더 분명한 농장경영과 자금관리를 해나가야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계산물 안전성 확보  
수입증가와 더불어 강화 움직임**

10여년 전까지만 하여도 먹을 수 있으면 감지덕지였는지 모른다. 나이가 많을수록 내용보다는 양을 선택해 왔기 때문에 닭고기와 계란의 안전성 확보에 대해 설명을 하자면 난감한 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세월이 흐른 현대에 와서는 먹을 수 있는 닭고기와 계란이 문제가 아니라 같은 닭고기 계란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위생적이냐가 더 큰 관건이 되고 있다.

아이들만 보아도 과거에 비해 위생적으로 양육되어 어찌보면 유해균에 대한 저항력이 과거

세대보다 떨어질 수 있다는 견해를 제기하고 있어 양계산물이 식품으로써 보다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단순한 의학적 원칙에 입각해 주장을 펴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수입이 전면 개방이 되어 수입산물에 대한 엄격한 안전성 및 품질검사로 인해 국내산 양계산물에도 검사가 강화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수입계란 검역 항목**

검사 구분	항 목
잔류물질	항생물질-옥시테트라사이클, 프리벤다졸 농약검사-알드린, 디엘드라, 크로르레인, DDT, 엔드리, 제타크롤, 린텐, 크로르피리포스메칠 *CODEX기준
살모넬라	SE(살모넬라 엔테라이티디스), ST(살모넬라 타이피유리움)
부패여부	관능검사

지난 1999년 2월과 11월에 걸쳐 태국산 계란의 국내 반입시 검역원이 실시하고 있는 검사 항목을 파악해 본 결과 잔류물질로는 항생제와 농약, 살모넬라로는 SE, ST, 그리고 부패여부를 조사하고 있는데 검역과정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우리 국내산 양계산물도 수입 닭고기와 계란 검역 항목을 잘 분석하여 우선 도계장이나 집하장에서 자체 검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국내산이 수입산보다 위생면에서 뒤진다는 역풍보가 가능해질 수 있음을 명심했으면 한다. **양계**